

단로위에 自己의 쿠키 솜씨를 자랑하는, 도서위원이 끌어주는 라면을 함께 나누면서 열람용 목록을 등사하였고 年刊 圖書館 會誌 "성도공우" 제3호를 發刊했다.

날이 갈수록 實力이 向上 된다고 뽑내는 도서위원들의 「라면」 요리 솜씨자랑하는 광경을 옆에서 지켜 보노라니 그 옛날 高等學校때 國語책에서 읽었던 '爐邊의 鄉思'가 떠올랐었다. 그 情趣 뭐가 맛보아 알랴! 한 겨울에 教科書 供給作業은 이만 저만한 어려움이 아니었다. 주고 받는 일에 승강이질도 문제거니와 數의 術이 또한 鬼神이 곡할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赴任 첫해를 決算하던 校內的으로는 學校圖書館의 本質의 機能中 가장 중요한 讀書指導를 손대지 못한 채 한 학년을 마쳤고, 校外的으로는 學校圖書館 全體 共同關心事에는 눈을 돌릴 여유도 없이 바쁘게 헤매었다고 생각한다.

(2) 제2년째(1976 학년도)

教科書供給의 위치 닦거리와 圖書館豫算(學徒 護國團費中) 編成등으로 學年은 끝나고 새 學期를 맞이 하였다. 3月初 겨울 放學中 圖書館 運營結果報告와 함께 '76학년도 圖書館 運營計劃(讀書指導計劃 포함)을 기안승지로 장장 10매를 메워 提出하였던 바 學校 最高 管理層의 司書教師와 圖書館을 보시는 態度가 一變하였다. 그 內容은 대충 校內的으로는 新入生の 讀書指導, 도서관 시설의 보완, 도서위원의 選任 指導규정, 열람실의 운영方法, 資料의 完全정리와 구입계획, 年間 讀書指導計劃이고 校外的으로는 한국도서관협회 및 한국도서관학회와의 유대강화, 各級 圖書館의 見學등으로 學校圖書館의 弘報活動과 함께 學生圖書委員들의 社會 教育에 대한 계획등이었는데 꽤 奏效하였다. 그렇잖아도 學校圖書館과 學生 讀書指導에 대한 關心이 學校長 中 가장 強하신 분중 한 분이신지라 일차적으로는 司書教師의 活動에 대한 期待를 걸어보게 되었다. 이 학년도에는 1學年에 대한 수업도 맡은지라 圖書館 教育, 讀書教育은 보다 容易하였다. 3月 中旬에 圖書委員을 선정하여 學校長의 도서위원 任命狀 授與式도 가졌다. 4월에 들어서자 圖協과 市 教育委로부터 圖書館 週間行 事計劃이 시달되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 또한 필자 생전 처음 主管해 보는 일이라 昨年の 제21회 讀書週間行事を 맞았을 때와 같은 心情, 그러나 그 옛날 公務員 時節 술한 行事を 주관해 왔던 때를 회상하면서 校內·外 行事事로 구분하여 前者는 圖書館 行事に 무관심한 墮性(?)에 젖은 教職員들로 하여금 이 行事に 參與케 하고 後者는 圖書委員을 中心으로 한 各級 圖書館의 見學이었다(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市立東大門도서관) 讀書指導는 新入生에 대한 課題讀書에 始作, 1·2學年으로 하여금 每月 1권이상의 良書를 읽도

록 하고 매 월말에 그 달의 讀後感과 다음 달의 讀書計劃을 作成 提出케하여 이를 검열함으로써 出帆하였다. 그런데 이게 쉬운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꾸준한 督勵와 指導로 學生들의 讀書量은 점차 늘어갔다. 好事 多魔라 하더니 5月 靑少年달에 뜻 하지 않던 일이 발생하였다. 하나는 事務室內에 둔 目錄카드 作成 및 간단한 油印物 作成用 小型 등사기(이는 필자 손으로 친히 만든 것임) 한 셋트의 失物事件이고 다른 하나는 열람실내에 비치해 둔 學習參考書類 100餘卷의 盜難事件이었다. 前者는 그 후 1週間만에 小包로 懺悔의 글과 함께 되 돌아왔고 後者는 다른 사건과 함께 곧 解決이 되었다. 필자는 이 일들로 困하여 깊은 教育的 省察이 있었다. 아! 믿는 도끼에 발 찍힌다더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개탄도 해 봤으나 이것 또한 나의 經驗 不足, 잃어버려도 모른 척하고 사랑으로 지켜 봤더라면 事件의 主人公에게 마음의 傷處하나 입히지 않고도 모른 것은 正常으로 復歸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後者の 경우는 엄청난 危險을 무릅쓰고 2층까지 기어 올라와서 창문을 열고 侵入한 主人公의 冒險心, 또 竊取한 冊들을 고스란히 自己집 창고에 保管해 둔 心理—단순한 所持慾—등은 靑少年에게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일임을 알자 教師의 學生에 대한 指導가 얼마나 세심해야 하고 또한 個別的이어야 하지 않을까 痛感했다.

점차 圖書館에 관심이 깊어가자 5月下旬에는 IFLA 大會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高等學校 圖書館이 國際大會에 참가한다는 일이 보통 일은 넘는다고 생각되었기에 最高 管理層의 보는 눈도 달라졌다. 午前에 授業하고 오후에 참석하고 어떤 날은 그 反對 現상으로 1週間을 바쁘게 보내었다.

6월에 들어서니 벌써 '77학년도용 教科書의 注文이 시작되고 讀後感 綜合評價가 있었다. 7월에는 여름 放學中 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특히 未盡된 열람용 목록카드의 完備計劃이 中心이 되었다. 그리고 매 월말에 調査發表해 온 讀書順位의 1學期末 綜合順位를(20位까지) 조사 발표하여 줌으로써 학생들의 放學中 독서계획에 참고하게 하였다.

8月中旬에는 그간 관계해 온 讀書科學會가 개최한 IRA의 讀書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크게 느낀 점 하나는 우리나라는 언제 正常的인 學生讀書指導가 이뤄지겠는가? 이를 위한 機構 組織은 또한 언제 體系化 될 것인가? 였다,

9월에 들어서자 讀書週間行事準備에 눈·코 뜰 사이가 없었다. 우선 開校 記念日을 期하여 전개한 Book-Drive 운동으로 1千餘卷의 圖書가 寄贈되었으며 도서관 최고 이용자, 最多讀者, 표어·포스터 우수작, 우수독후감에 대한 施賞과 圖書委員들의 見學(大韓出版

文化協會, 藏書閣)과 放學中 製作한 열람용 북북카아트 16,000여매의 展示였다.

2學期에 들어서니 不足한 열람석의 자리다툼은 드디어 利用成績에 의한 指定席制를 創設케 하였다. 이렇게 되니 도서위원들의 地位는 더욱 돋보이게 되었고 그들 역시 상당한 自負心으로 奉仕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 해도 저물자 「겨울 방학중 도서관 운영 계획」을 또 한번 세우게 되었다. 赴任 두번째 해를 決算해보니 첫 해보다는 상당한 自身의 進歩와 도서관 본래의 機能발휘에 어프로우치 했다고 느껴졌다.

(3) 제3년째(1977학년도)

‘금년에는 멋지게 운영해 봐야지’ 하는 굳은 意志 下에 「'76학년도 도서관운영결과보고 및 '77학년도 도서관 운영계획」을 문제점의 改善方案의 提示와 함께 學校長의 裁可를 얻어 學年初부터 强하게 밀고 나갔다. 이해에는 讀者와 圖書館의 能力誇示에 主眼點을 두었다.

우선 學校圖書館의 主機能인 讀書指導의 徹底化를 위한 方案이 강구되어야 하겠기에 독서흥미 誘發계획을 세우고 피나는 努力을 傾注했다. 그 實例는 「今週의 讀書資料 紹介」라는 타이틀로서 各種 읽을거리를 油印物로 만들어 교직원과各班에 配布하고 게시판에 게시했다.

또한 제23회 도서관주간에는 學父母까지 參加시킨 優秀 讀後感 募集을 해 봤더니 3,40대 자모의 應募도 있었는데 往年의 讀書實力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入選되어 學校長의 賞狀수여식까지 있었다. 또 每月末에 통제로 나타난 月 讀書順位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刺戟劑가 되어 讀書하는 학생數의 增加를 보였다.

이 해도 계속하여 도서위원들의 各級도서관 견학은 (도서관 주간중) 시작되어 東國大와 국립중앙도서관 및 大法院 도서관과 大法官會議室, 刑事裁判 法院방청을 하였으며 辯護士 法律事務所도 見學했다.

특히 잊지 못 할것은 「여름 방학중 도서관 운영계획」의 하나로써 도서위원 14명과 함께 南海岸一圓의 탐방이었다.

馬山 輸出自由地域, 巨濟島 玉浦 現代造船所 건축현장, 海星高等學校, 只心島 ××××초소의 견학과 臥峴해수욕장 캠핑등으로 그동안의 心身의 疲勞를 마음껏 풀기회를 가졌다는 점이다.

9월에 들어오자 제23회 도서주간을 맞게 되었는데 1學期부터 준비해온 「全國 各 大學論文集 및 各國語別 定期刊行物展示會」와 金炳元 선생님의 招請 讀書講演, 圖書館報 創刊號의 發刊, 도서관 관계 各種 施賞, 昨年の 創刊號에 이어 學校 英字新聞에의 讀書關係 글 投稿, 제2회 Book-Drive 운동 전개(600여권 기증)등으로 有終의 美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한 편 도서위원의 年中 見學計劃은 不變, 延世大, 成均館大 및 國會圖書館의 見學과 國會傍聽이 있었고 필

자 자신은 第1回 現代圖書館講座에 참가 頽落해버린 知識과 教養을 쌓을 수 있었다는게 學校 授業現場과 관련하여 더 없는 收穫이었다. 끝으로 필자의 職務와 관련된 것중 가장 문제점을 남겨 준것은 教科書의 供給體制이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필자는 마라톤式 日課의 연속이다.

今年에는 도서관 운영을 무엇으로 배워 나갈 것인가 昨年에 試圖에 그쳐 버린 Biblio-therapy을 통한 問題兒 指導를 해 볼까하며 第14回 圖書館週間에는 世界各國 高等學校用 教科書 展示會를 그리고 讀書週間에는 禁書目錄(不穩文書目錄) 模擬刑事裁判을 열고 싶다.

Ⅲ. 하고 싶은 말

필자의 쓰디 쓴 過去를 自身과 家庭父母님들께 贖罪 하려는 뜻에서 自身을 온 통 죽이는 生活로 치달는중 學校圖書館生活, 司書教師의 立場에서 너무나 할 말이 많다.

첫째로 學校圖書館 司書教師에 대한 學校 最高 管理者(層)의 특별한 관심과 現實的인 配慮가 있어야 하겠고 同僚教師(특히 擔任선생님)의 물이해, 방관적 態度의 止揚이 아쉽다. 그러나 3年을 한결같이 圖書館人으로서, 司書教師로서 일하여 왔을 때 그들은 모두 承服하고 말았다는 생생한 經驗으로 밝은 내일을 期待하고 싶다.

둘째, 司書教師는 萬能者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다. 왜 無能하다는 評을 듣고 또는 無視를 받아야 하는가?

셋째, 司書教師는 물러서지 말자. 필자의 學校圖書館 3年の 生活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바로 司書教師의 一般教師로의 轉向이다.

꿈되고 어려운 것을 버리면 그 分野 그 職務 누가 誠意껏 다 해 주겠는가? 理由야 많고, 多少 妥當性도 가지겠지만 圖書館 全體의 發展에 상처를 주는 行爲는 삼가해야 하지 않을까? 同志들이여 다음의 구사로 慰勞받고 싶다.

1. 비 바람 물아치는 밤이 있기에
등 녘에 태양이 한결 빛난다
어둠을 모두다 뚫고 나가면
오리라 틀림없이 희망의 날이
오리라 틀림없이 희망의 날이
2. 어둠이 겹쳐 쌓인 날이 있기에
맑은 날이 더 한층 우리 비인다
가시발을 모두다 헤쳐 나가면
오리라 틀림없이 즐거운 날이
오리라 틀림없이 즐거운 날이

마지막으로 讀書指導는 「讀書力 開發指導」와 「良書 읽고 讀後感 쓰기도」로 區分하고 이를 併行 실시하였으면 한다.